



다큐멘터리 사진작가

박하선의 사진 풍경

꽃잎 진다 설워 마라



꽃잎 진다 설워 마라
한 번 가면 그만인 것이 우리지만
너는 다시 내년 봄을 기약한다.
봄바람에 휘날리면
그것 또한 꽃이지만
그 꽃바람조차 춘몽이던가

날이면 날마다
가시는 걸음마다
꽃길이면 좋으련만
세상일이 천 근이요,
꿈길에서도 만 근이라.

봄바람에 눈물짓는 꽃잎들아
그 많던 벌 나비, 산새들은 어딜 갔나
화사하던 네 모습도 화석이 되어가고
장자의 나비도 나른한 오후에
봄날은 간다